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37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월 29일 (음력 12월 13일) 월요일

## 다음달 5·18 특조위 '진실의 상자' 열릴까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을 조사 중인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늦어도 다음 달 8일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국방부 스스로 부인해왔던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국방부 특조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꾸려진 특조위는 지난해 9월 11일부터 5개월 간 벌여온 조사 결과를 오는 2월 8일 발표할 예정이다.

### 내달 8일께 최종 조사 결과 발표하고 활동 마무리

### 부인했던 헬기 사격·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관심

특조위 조사 기간은 지난해 11월 30일에서 오는 2월 10일로 한 차례 연장됐다.

특조위는 오는 9일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모든 이슈를 삼킬 것을 우려, 조사 결과 발표를 이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백서 발간, 문서 이관 등을 위해 조사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추가 연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특조위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던 1996년 당시 기무

사가 5·18 관련 기밀자료를 모두 불태웠다는 것을 비롯해 전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정부가 80 위원회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이 외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군 내부 비밀 문서 수만 쪽과 관련자 증언을 확보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특조위 출범의 가장 큰 목적인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의혹을 직접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자료나 증언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 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상상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를 추론할 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할 만한 문서나 증거, 증언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려했던 대로 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한계가 작용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와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가 왜 필요한지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미공개 비밀 문서들을 통해 어느 정도 새로운 5·18 진실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견리 특조위원장은 "내달 5~9일 사이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며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에 대한 조사 성과와 한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더 이상의 조사 기간 연장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조위원은 "종합조사보고서 최종 교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을 수차례 진행했고 헬기 사격 및 전투기 관련자들을 전수 조사했다. 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남규 기자



최강한파에 얼어붙은 바닷물

한파가 이어진 지난 25일 강진군 칠량면 봉황마을 앞 바닷물이 추위에 눈이 쌓인 것처럼 얼어붙어 동장군의 위력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등하불명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2월 'MB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들이 줄줄이 가족사진을 검찰청 앞에서 찍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국민의당자기운동본부(법당 반대파) 전체회의에서 "우린 이런 적폐청산을 함께 해야 한다.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보는 인철수 대표와 헤어져야 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안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또 말하려는 것 같다"며 "또 합당 파트너인 유승민 대표 역시 자기들이 모셨던 분들에게 얼마나 애석하게 생각할까. 참 복잡한 한집안"이라고 했다.

이어 "사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찰로 말한다"며 "MB 말로가 보이기 때문에 국민 개혁산당을 창당해서 적폐청산을 과감히 하고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이뤄져 새로운 대한민국정의로는 대한민국이 무는 데 함께 앞장서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관련 인사들의 추세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 자료사진=뉴시스



박지원



이명박



박지원

## 민주평화당, 창당발기인대회 개최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 인사들이 추진한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창당 발기인 대회 및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조배숙 의원이 선출됐다.

조배숙 창추위위원장과 최경환·장정숙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당발기인이 전부 2485명이 됐고 현

역 의원들은 현재로서는 16명"이라며 "앞으로 창당대회까지 좀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당 현역 국회의원은 천정배, 정동영, 조배숙, 박지원, 유성엽, 장병완, 김광수, 김경진, 김종희, 박주현, 박준영, 윤영일, 이용주, 장정숙, 정인화, 최경환 의원 등 모두 16명으로, 비례대표도 2명 포함됐다.

창준위는 창당 취지문에서 "철저한 적

폐청산과 국가 대개혁으로 촛불혁명을 완수하겠다"며 "보수야합에 단호히 반대하는 개혁주의도 민생제일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창준위는 내달 5일로 예정했던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전남 등 5개 지역 시도당 창당대회를 내달 1일로 앞당겨 열기로 했다. 이어 6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창당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봉우 기자



민생의 길 평화의 길 민주의 길 개혁의 길 미조편하다 차다바기이대회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정은 행복해지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 장시간 근로 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